

새마을지도자 신안협, 소하천살리기 봉사



새마을지도자 신안군협의회(회장 이명운)는 지난달 30일 팔공면 고산선착장 인근 해안에서 섬지역 소하천살리기 정화활동을 펼쳐 쓰레기 2t을 수거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건보공단 광주본부 다문화가정 자매결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병권)는 최근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과 휴먼 네트워크 멘토링 자매결연을 가졌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하계 교수연수회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수관)은 최근 목포 현대호텔에서 30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하계교수연수회를 가졌다.

차두옥 교수 청소년영상제 집행위원장에

차두옥 동신대 교수(방송연예학과)가 최근 제12회 한국청소년영상제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청소년영상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소년 영상제로, 지난 1999년 10월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1318의 창 그리고 소통'이라는 슬로건 아래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작품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19세 이상의 대학생부를 제외하고 개인상을 신설하였으며, 아시아의 단편 우수작을 초청하여 상영하는 진취적인 변화를 선택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유스퀘어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호주 총선 한국교포 유일 하원의원 출마 광주 출신 남경국씨

“한국 교민사회·이민정책에 힘 쏟겠다”

2001년·2003년 도전했다 잇단 실패 아버지 이어 캔터베리 시의원 활동중

“이번 호주 연방의회 총선에서는 야당인 자유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이민정책을 다루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는 21일 치러지는 호주 연방의회 총선에서 한국교포로서는 유일하게 하원 의원에 도전장을 낸 남경국씨(Ken Nam·32·시드니 캔터베리시의원·부동산중개업)는 “집권 노동당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줘 이번 총선에서는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라

며 “남은 3주의 유세기간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자유당 공천을 받아 캔터베리 시의원에 당선돼 2년째 활동 중인 남 의원은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1978년 아버지 남기성(61·99~2008년 캔터베리 시의원)을 따라 호주로 이민했다. 그의 할아버지인 남만우씨는 60~70년대 임명직 진도군수, 광양군수, 해남군수, 고흥군수, 여천군수, 나주



시장 등을 역임했다. 남씨는 불과 24세 때인 2001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군소정당 유니트당

소속으로 연방의회 하원 의원 출마를 선언했지만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이어 2003년에도 역시 유니트당 소

속 후보로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의회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또다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2008년 캔터베리 시의원에 당선된 뒤, 물론 교민사회는 물론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의원으로 2년째 일하다 보니 역할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호주사회는 물론 한국 교민사회를 위해 크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첫 도전이라 떨린다”면서도 “한국교포 출신 정계 선배로서 정치 꿈을 꾸고 있는 한국교포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물 중요성 알리고... 선조들의 전통 계승하고...”

장흥 물축제 뗏목경연대회 참가 양승원씨

“배가 없어 뗏목을 타던 과거에는 많은 주민들이 뗏목을 직접 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선조들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할 따름입니다.” 1일까지 제 3회 장흥 정남진 물축제에서 열린 뗏목타기 대회에 출전한 양승원(45·장흥군 안양면 지천리)씨의 소감이다. 그는 즉백 통나무로 엮어 만든 가로 5m·세로 3m 크기에 9명이 노와 사대

(얇은 곳에서 배짖을 할 때 쓰는 장대)를 이용해 펼치는 뗏목타기 경연대회에서 안양면 팀의 감독과 선수를 맡았다. 장흥 물축제 기간에 부대행사로 열린 뗏목타기 대회는 탐진강에서 열렸으며 남·녀 각각 10개팀이 출전했다. 뗏목타기는 110m의 경기장을 왕복해 220m 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야 승리하는 방식이다. 9명의 협동심이 필요한 경기로 순간적인 힘으로 재빠르게 나아가야 한다. 경기는 앞 선수 2명이 깃발로 방향조절을 하고 가운데 4명은 노와

사대로 균형과 속력을 내는 역할을 한다. 후미 3명은 5m 길이의 장대로 추진력을 발휘해 앞으로 나아가는 등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뗏목경연 대회는 어떤 기계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나 혼자 힘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죠. 9명 모두 호흡이 적절히 맞아야 하며 노와 사대를 잘 이용해야 하는 요령 싸움인 거죠.” 양씨가 감독 겸 선수를 맡고 있는 안양면 남자팀은 지난해에 우승한데 이어 올해도 우승을 자신했지만 아쉽게 4위에 그쳤다. 이 경기에 의해 장흥의 물축제 전국으로 알리고 선조들의 전통방



식을 보여주는 것이만큼 우승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대표들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유대관계도 더욱 좋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원로 수필가 전숙희씨 별세

국제펜클럽 종신 부회장이자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을 지낸 원로 수필가 전숙희씨가 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38년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단편소설 ‘시골로 가는 노파’로 등단했다. ‘탐자의 변’, ‘PEN이야기’ 등 수십 권의 수필집을 냈다. 유족으로는 아들 강영국(재미 사업가)·영진(한국현대문화관 관장)씨, 딸 은영(미술가)·은영(미술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5일 오전 8시. (02)3010-2230.

다문화 주부 명예기자 됐다

전남도 태국 출신 등 4명 위촉

전남도 주부명예기자에 다문화 가족 출신 주부들까지 참여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위촉한 주부명예기자 100명 중 4명이 다문화 가족 출신 주부로 목표와 여수·순천·광양시 거주자들이 참여했다. 명예기자단의 다문화 가족 출신 주부는 2008년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시 단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다문화가족 출신 주부명예기자는 시사아(34·태국), 미설사자 레이문도(34·필리핀), 페레야 마리셀(39·필리핀), 리비올레타(35·우즈베키스탄)씨 등이다. 전남도는 주부명예기자에 다문화 가족 출신 주부들이 참



왼쪽부터 시사아(태국·34) 씨, 미설사자 레이문도(필리핀·34) 씨, 박준영 전남도지사, 페레야 마리셀(필리핀·39) 씨, 여함으로써 그동안 지역 일변도의 도정 홍보에서 벗어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사

- ◆해남군 <4급 전보> ▲기획홍보실장 이정돈 <5급 전보> ▲문화관광과장 김홍길 ▲가족복지과장 강형식 ▲지역개발과장 정진배 ▲산림복지과장 전성술 ▲행정지원과장 백종호 ▲세무회계과장 김홍수 ▲육천면장 이상국 ▲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 ▲보건소장 김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 <5급 승진> ▲북평면장 윤영대 ▲북일면장 이광운 ▲화원면장 김정관 ▲의회사무과 민성배 ◆조선대 ▲기획조정실장 김하림 ▲교무부처장 최효업 ▲학생처장 김재형

언론인 선무정씨 별세

광주일보 논설위원·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 선무정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67세.



광주대생인 고인은 중앙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구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에 입사한 후 편집부장 정치부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은 미망인과 1남 2녀. 발인은 2일 오전 9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며 장지는 광주 영락공원. 연락처 062-231-8905.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목)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인터넷으로 주례신청=검색창에 '주례나라'를 검색하면 어디서나 결혼식에 검증된 주례선생님을 모실 수 있음(단, 제주도·울산시 제외) www.jure.ck.kr, 061-245-3350.

▲프레시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 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육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등. 010-6392-713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좌=21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신기념 도서관 5층 양택, 음택, 수택, 내경·입향론, 비결명당, 장방요강 등 이론과 현장 제시(책자 무료제공). 011-609-8117, 062-670-2161.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무료강좌=6일(금)까지 오전 9시30분~12시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미술치료(일반·교사·학생 남·녀 노소 누구나 참여가능·수강료 무료) 일신중학교 평생교육원(교수 조정아) 011-610-6589.

모집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 모집=미술치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허브다이어트&주원 회원 수시

모집=복부비만·근육유지·체질개선·미즈이식주요법·암세포사멸·면역력상승·자율신경실조증·알레르기증상 개선·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070-8780-5901.

▲갈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장 모집=전남 시·군 전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있는 참신하고 의욕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272-2207.

▲한국은퇴자협회 사회봉사 회원

모집=현직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 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현신할 수 있는 의원 및 전남북지역 지회장하실 분 환영. 062-223-1357, 010-9773-2456

▲중매제가족지원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응급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Advertisement for '삼가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We pray for the soul of the deceased).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funeral services,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locations like Injeon and Baksong.

Advertisement for '그린장례식장' (Green Funeral Home). It provides details about funeral services, including contact numbers, addresses, and information about green burials.